

포항시, 철강 등 지역산업 연계 ‘포항형 MICE 모델’ 준비

2027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개관
첨단·친환경 국제포럼 적극 유치
‘동북아 그린 MICE 허브’ 육성 구상

포항이 ‘철강산업의 도시’를 넘어 첨단산업과 국제교류가 어우러진 글로벌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는 2027년 개관을 앞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전시·컨벤션(MICE) 산업은 디지털 전환, ESG, 산업연계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포항 역시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포항형 MICE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POEX의 가장 큰 강점은 산학연 협력이다. 포스텍,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시 참가자들이 산업현장과 연구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조감도.

/포항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학술 발표, 기술 전시, 스타트업 신제품 소개, 투자 상담이 동시에 진행돼 연구-산업-자본을 잇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청년층은 인턴십과 행사 참여를 통해 글로벌 MICE 실무를 경험하고,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은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MICE 산업의 새로운 흐름인 블레저(Bleisure·Business+Leisure) 개념도 POEX의 핵심 전략이다. 대규모 행사 참가자들이 업무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포항의 해양·문화 관광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일대해수욕장, 호미곶, 죽도시장 등 관광지와 포항국제불빛축제 같은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호텔·외식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관광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POEX는 북구 장성동 옛 미군기지 ‘캠프 리브’ 부지(26,608㎡)에 건립 중이다. 총 연면적 63,818㎡(지하 1층·지

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2,166억 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후 전시장과 부대시설을 확충해 국제 대형 전시회와 학회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포항시는 이차전지·수소·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관련 국제포럼을 적극 유치해 POEX를 ‘동북아 그린 MICE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POEX는 전문가만의 공간이 아니다. 전시·공연·체험행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청년에게는 MICE 산업 실무 경험과 일자리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박람회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컨벤션센터’로 나아갈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POEX는 산업과 관광, 학술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개관을 통해 ‘철의 도시’를 넘어 ‘포항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신당천 하천정비 속도

경주시는 하천 재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물천리에서 형산강 합류부에 이르는 신당천 지방하천 구간(8.07km)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66억 원(도비 219억 원, 시비 147억 원)을 투입해 하천보축 및 확장 정비, 교량 7개소 재가설 등을 진행 중이다.

2021년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1~4차 공정을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희망교 재가설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동산교 거더 거치와 슬라브 타설을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차분 공정과 전체 구간을 조기 준공할 예정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포항시

“가을장미페스타’ 놀러오세요”

포항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영일대장미원에서 ‘2025 포항 가을장미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의 낭만과 도심 속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바다와 장미의 만남’을 주제로 포항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강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울산시, 24일 가을축제 개최

울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바람이 머무는, 가을정원’이라는 주제로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 40분 태화강 국가정원 양버들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는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국화, 핑크몰리, 팜파스그라스, 코스모스, 물억새 등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이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울산(경북)=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설명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 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로 확대 개편한 해운 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과 24일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저시황기 우려 확산에 따라 국적 선사의 경영 지원 및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해진공는 이번 사업 설명회와 함께 16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중견·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 ESG지원펀드 공모 사업 참여 선사 모집에 나선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산불 재난 대응체제 강화

다기능 담수보 설치사업 추진
소방용수 접근성 획기적 개선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사진)가 전국 최초로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형 다기능 담수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최근 산불의 대형화·연중화 추세에 하천수를 직접 활용한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기능 담수보 설치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산청·하동 지리산 지역 대형 산불 당시 하천수 활용이 산불 진화에 큰 효과를 거둔 것을 계기로 추진된다. 산불 발생 시 하천수를 소방 헬기나 소방차 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범 대상지는 지리산 권역의 함양 임천과 산청 덕전강으로, 산불조심기간 충분한 용수 확보가 가능한 하천 폭



60m 이상, 유역면적 50㎢ 이상의 중형 하천을 선정했다.

각 대상지에는 높이 1.5~2.0m 규모의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해 최대 1만 8000톤의 물을 채울 수 있다. 필요시 기립(起立)시켜 확보한 담수를 활용하고, 홍수기에는 전도(顛倒)시켜 하천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로, 계획 홍수위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한 친환경 공법이 적용된다.

사업비는 보(梁)당 약 13억원 규모로, 도는 올 하반기 설계 용역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지고, 헬기 급수 및 지상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도내 화장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인터참 모스크바

경북기업 공동관 통해 109건 상담

경북도는 15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에서 열린 제32회 ‘인터참(InterCHARM)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20개국 1700여 기업체가 참가했으며, 경북 화장품 기업들은 최신 기술력과 혁신 제품을 전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디유코스메틱, 미진화장품, 블레스드, 셀드로우, 애니룩스, 토브, 허브F&C 등 경북도내 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총 109건의 상담을 통해 약 15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실적을 거뒀다. 특히 미진화장품



‘인터참(InterCHARM) 모스크바’ 경북 홍보관.

은 러시아의 마스코홀릭(Maskoholic)사와 귀걸이형 리프팅 시트 마스크 팩 3종 수출 계약을 체결해 5만 1,000달러의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참가 기업들을 위한 수출 상담 통역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했다. 또한 경북도 연해주 통상투자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펼쳤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전남캠핑관광박람회, 3만5000명 ‘복적’

해남군 캠핑·관광 융합 복합축제 호평

국내유일의 캠핑과 관광이 융합된 전남캠핑관광박람회가 전남 해남에서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해남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 일원에서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개최했다. 캠핑 관련 100개기업이 참여한 박람회와 4000명의 캠핑객이 참여한 캠핑대회 등으로 오시아노 관광지가 캠핑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 행사기간 사흘동안 캠핑객을 비롯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 등 3만 5000여명(10월 19일 정오 기준)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족들이 오시아노 해변의 캠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지속가능한 친환경캠핑 캠페인과 포럼, 오시아노 음악공원이 어우러진 복합 축제로 캠핑문화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며 호평받았다.

명현관 군수는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RE100 국가산단 유치와 에너지신도시 조성 등 전남의 미래산업과 어우러져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주시, 지역 농특산물 ‘LA한인축제’ 출품

홍삼·벌꿀 등 11만 달러 규모

영주시가 미국 최대 한인문화행사인 LA한인축제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주 수출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52회 LA한인축제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 25종을 선보였다.

이번 영주시의 참가에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소백산아래, 나드리푸드, 라삼농업회사법인 등 총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홍삼, 벌꿀, 잼, 부각, 쫄면 등 전통성과 현대 감각을 아우르는 다양한 식품을 출품하며

현지 시장에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출품 규모는 총 11만 달러(한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한다.

영주시는 이번 해외 진출을 통해 미국 내 농특산물 수출 판로 확대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숙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주의 특산물이 LA한인축제를 통해 미주 교민은 물론 현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 지역의 건강 먹거리를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